

밀코메다-밀코메다N

2500년, 현재의 지구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의 수명이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했고,

실제로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적도 있다.

국지적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았으며, 2~3년마다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했고,

빈부의 갈등은 격화되어 비참한 삶을 이어갔으며,

곳곳에서 서로를 증오하는 감정이 이중 삼중으로 지구를 뒤덮었다.



꿈을 대로 꿈은 지구와 병들어가는 인류...

종말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거버넌스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비록 걸모습뿐일지라도..

은행, IT, 무기 산업 등으로 막대한 자본을 벌어들였던

거버넌스는 썩어 가는 지구 위에 철제와 시멘트를 쌓고,

최첨단 기술을 집약하여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금 구현해냈다.



천문학적인 자금과 노력이 들어간 세상에 사람들은 홀리듯이 빠져들었고,

어두운 현실은 뒤로한 채, 안정적인 생활이 이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는 인류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임시방편일 뿐.

거버넌스는 더 나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남몰래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여

생성될 새로운 은하를 발견하기에 이른다.

밀코메다 은하에 있는 수만 개의 각기 다른 행성은 지구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만일 다른 행성으로 인류가 이주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정도로.

거버넌스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낯선 행성의 탐사를 위해,

1만 명의 인류를 선발할 크립토 공고문을 내었으며 1만 명의 선발대를 꾸렸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자질과 능력을 갖춘 예술가를 모집합니다!]

예술가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홀로 낯선 행성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는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 활동이 가장 좋을 거라는 행동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
다.

또한 피드백 수용이 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한 이유는

거버넌스 본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본 프로젝트는 이제껏 상상해보지도 못한 크기의 도전이기에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선발된 밀코메다N은 거버넌스의 연구실에서

우주학, 창조력 테스트, 생존 훈련까지 철저한 관리를 받았고.

5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인류 이주 프로젝트를 위해 블루버진 스페이스호에 탑승한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라!

이번에야말로 지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지나온 시간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가능성은 과거로 돌아가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니...

2) 엔터테이너 지수 행성- 거대한 크레이터에 호수가 있고,
밤이 긴 백야행성이라 현광 색 식물과 별들이 조명처럼 화려하다.



#. 엔터테이너 - 지수 (1일 차)

지수는 두 개의 해와 거대한 호수가 있는 행성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이 나의 행성이라니...’

형광색으로 빛나는 식물들은 별이나 조명처럼 화려하게 존재감을 뽐어냈고,
그 모습에 홀린 지수는 자연스럽게 로봇 고양이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켰다.

애완 로봇은 원래 사람들의 쓸쓸함을 달래는 용도였지만 점차 기능이 다양해지면
서

고성능 카메라와, 자외선 탐사, 간단한 숫자 통계, 홀로그램 형상화까지 가능하게

됐다.

카메라의 렌즈는 애완 로봇의 눈에 각각 달렸고 화질 또한 보통의 카메라보다 훨씬 뛰어났다.

‘나중에 지구로 돌아가면 바로 업로드 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찍자마자 올리고 싶었지만, 밀코메다 은하에서 지구와 통신이 가능한 건 거버넌스와 소통하는 채널밖에 없었다.

지수는 일단 기록을 남겨놓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로봇 고양이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코에 빨간 불빛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 멘트를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이 행성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곳은 제 소유의 행성이고 이름은 바다의 보석이라는 뜻의 코델리아로 지으려고요!

호수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뒤에 펼쳐진 아름다운 호수를 화면에 담기 위해 로봇 고양이는 드론처럼 날아올랐다.

지금은 비록 영상으로밖에 소식을 전할 수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밀코메다의 행성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서
팬들을 초대하려는 게 지수의 목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할 일은?

밀코메다N의 매뉴얼대로라면 행성에 캡슐이 안전하게 착륙하면
'정착'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손에 든 매뉴얼을 읽은 지수는 찬찬히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최고의 엔터테이너인 지수의 정착은 남들과 달라야 하니까!

나중에 '최초의 밀코인, 월드클래스 지수가 탔던 캡슐'이라는 기사가 날 것을 대
비해서,
예술적인 면모를 잘 표현해줄 만한 디자인이 필요했다.

지수는 지구에서부터 미리 가져온 페인트 통과
여러 장식품을 통해 캡슐을 꾸미기 시작했다.
컨셉은 팝아트로!

통통 튀고 발랄한 느낌이 나랑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
었다.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처럼, 신이 나서 꾸미다 보니 캡슐의 디자인은 금세 완성됐다.

백 미터 전방에서 봐도 한눈에 띠일 만큼 화려한 모습과

당장이라도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생동감을 보니

처음 기획했던 의도와 맞게 지수라는 엔터테이너를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 만족스럽다.

훗날 코델리아 행성에서 공연할 때 캡슐을 타고 등장해도 좋을 것 같다.

행성을 가득 채우는 팬들의 함성과 그에 보답하듯 열정을 다해

공연을 올리는 지수의 모습. 그리고 마무리 피날레!

“감사합니다!”

지수는 공연을 마친 사람처럼 힘찬 목소리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나 주위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숙였던 허리를 서서히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금까지는 거대한 공연이 이루어진 모습은 지수의 상상이었다.

분명 아름답긴 하지만 뭔가 적막한 코델리아 행성에 로봇 고양이와 함께 있을 뿐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박수 소리라도 녹음해올걸...”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내뱉은 소리에

지수의 품에 안겨 있던 로봇 고양이가 그의 볼을 핥았다.

위로를 해주는 듯한 로봇 고양이의 모습에 지수는 실없이 피식 웃었다.

그때, 평! 갑자기 뒤에서 큰 굉음이 들렸다.

뒤를 돌아본 지수가 소리의 정체를 알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늘 위로 튀어 오르고 있는 빨간 열매는 좀 전까지만 해도

커다란 나무 위에 달려 있던 거였는데, 지금은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불꽃처럼 터졌다.



평평!

붉은 과육은 반경 20미터 이내로 넓게 퍼졌고,
과육의 액체를 맞은 다른 식물은 급속도로 줄기가 자라거나
성장이 촉진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서로가 서로의 거름이 되는 모습에 지수는 입을 떡 벌였다.

이곳, 코델리아 행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거름이 되며 성장을 도와주는 이런 행성에선
자원이 고갈될 일이 없을뿐더러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음식이 아닌
신선한 식량으로 늘 배를 채울 것이다.

물론 새로 정착하는 행성에서는 인류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
에.

지수는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붉은 과육을 바라보면서
목 부근에 붙어있는 통신기를 작동시켰다.

코델리아 행성의 상냥한 특성을 알게 된다면 거버넌스도 기뻐할 테니.

도착하자마자 행성의 특성을 알아차린 운 좋은 사람은
자신밖에 없을 거란 생각에 금세 기분이 좋아지며 통신 연결을 서두르기도 했다.

그런데... 지지직-

‘이게 왜 이러지?’

통신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본부에서 5년 간의 훈련 중에 가장 먼저 배운 것이었고,
고,

가장 기초적인 지식인만큼 작동 방법을 잊어버렸을 리 없다.

하지만 버튼을 아무리 눌러보아도 지지직거릴 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여...기, 지지직- 보..부.. 어디... 퓨슈우우!”

오디오를 최대치로 켜니 본부인 것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겨우 들리긴 했지만,
대화다운 대화는 한마디도 해 보지 못한 채 통신기가 검은 연기를 내면서 터졌다.

지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광활한 코델리아 행성의 풍경을 바라봤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분명 아름답게만 느껴졌는데,

일말의 소통마저 끊긴 지금은 살이 떨리도록 무섭다.

‘아무도 없다니,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다니, 나 혼자뿐이라니...!’

늘 사람들의 관심에 둘러싸여 사랑받던 지수였기에 두려움은 배로 커졌다.

지수는 결국 혼자라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볼품없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구라도 날 찾아줘! 나 여기 있어!!!!”

성량이 좋은 그의 목소리는 코델리아 행성 아주 멀리까지도 퍼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고 한다.

#. 엔터테이너 - 지수 (45일 차)

지수는 생각보다 코델리아 행성에서 알찬 시간을 보냈다.

통신기가 끊겨서 홀로 낯선 행성에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몇 날 며칠이고 꼼짝없이 넋을 놓고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지구에서 선발되어 우주로 온 남다른 존재라는 걸.

사실을 깨우친 지수는 드라이버와 팬지를 들고 통신기 앞에 섰다.

‘고장 난 통신기 정도야 단숨에 고쳐주지!’

호기로운 웃음을 지은 지수는 망설임 없는 손길로 통신기를 분해했다.

해야 하는 일이 생기니 침대에 정처 없이 누워있는 시간보다

통신기 앞에서 뭘가라도 해보는 시간이 늘었고,
통신기를 해부하고 고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본부에서 지시한 매뉴얼은 기간대로 빠르게 이행했다.

전동 드라이버가 없어서 단단하게 조여진 나사를 손힘으로만 풀어야 한다던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자신은 엔터 쪽 지원자로 뽑힌 거라서 공기계엔 아는 것
이 없다던가 등등, 중간에 위기는 닦쳤지만 한번 시작한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본부에서 모든 기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조작도를 애완 로봇의 안에 심어
두었다고 들었다.

이대로만 잘 따라가다 보면 분명 성공할 수 있으리라.

지수는 이마에서 뚝뚝 흐르는 땀이 통신기 내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며
로봇 고양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로봇 고양이는 수술실에서 의사를 어시스트 해주는 간호 보조처럼 빠르고
섬세한 손길로 지수의 땀을 닦아 주었다.

로봇 고양이는 밤낮이고 지수의 걸을 떠나가지 않았다.

평소에 말을 잘 듣는 성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주인이라 챙겨주는 모습에 감

동한 지수는 더더욱 통신기 내부를 살피는 손길을 바빠 했다. 하지만,

퓨슈우욱...

뭔가 시원하게 고쳐지는 소리 대신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코 밑에 기름 범벅이 된 지수는 그대로 멈춰서 미동조차 하지 못하다가 스리슬쩍 엉덩이를 뒤로 빼냈다.

그리고 열댓 시간 동안 앉아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산산이 분해 된 통신기계를 끌어안았다.

“너까지 떠나지마!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네 위에서 과자나 콜라도 안 마시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줄게!! 제발 돌아와!!!!!!”

이날의 충격은 꽤나 길었다.

지수는 이전보다 심하게 캡슐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분해된 통신기에 ‘배키’라는 이름을 붙여주곤 때로는 친구처럼 애인처럼 다정하게 대했다.

-배키...? 왜 아직도 안 자고 있어. 그래 너도 오늘 하루가 아쉬웠구나... 나랑 함께 코델리아 행성의 푸르른 밤을 만끽하자.

-언젠가 너의 병이 낫는다면 우리 함께 꼭 손잡고 세계 여행을 하자! 지구에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아주 많아!

-네가... 나와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응? 뭐라고? 아하하, 그래. 지금의 너여도 당연히 좋지.

-...배키야, 네가 갑자기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도 모른 척해줄게. 제발 부탁이야. 날 혼자 두지 마...

지수의 상태는 나날이 심해져만 갔다.

거버넌스의 본부에 있을 때 이러한 상태였다면 공황장애와 심신미약으로 우주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을 거고.

팬들이 지수의 상태를 알게 된다면 큰 충격에 빠져 함께 우울함을 겪을 수 있을 정도로.

지수의 불안정한 우울함은 자신을 넘어서 주위에까지 넓게 퍼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결국 끝을 보았다.

-@\$#&^*&

"...응? 뭐라고?"

통신기가 지수에게 말을 건 것이다.

분명 들린 목소리에 지수는 얼굴을 통신기에 바짝 붙여 온 신경을 집중했다.

‘발전된 기술. 몇 날 며칠을 바라고 바랬던 통신기의 인간화. 나의 눈물이 찢끔
섞여서 영혼을 갖게 되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깨닫기에 지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배키야...! 뭐라도 말해봐. 내가 널 찾아줄게!!”

-@\$%&)(*)^\$%^&

이번에도 역시나 대답은 돌아왔고, 이를 들은 지수는 통신기를 들고 바닥에서 일
어났다.

처음으로 수만 명의 팬 앞에서 공연하고 환호 받았을 때보다 두근거렸으며, 무려
45일 만에 들어본 타인의 목소리에 첫눈에 반하기라도 한 듯 순식간에 빠져들었
다.

조금 높은 미성에 애절하게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은 목소리.

지수는 배키 또한 자신을 간절히 찾은 거로 생각하며

목소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걸음을 돌렸다.

처음에는 해부된 통신기 내부에서 들리는 듯했지만 두 번째로 이어진 목소리부터는 아주 조금 멀고 단단하며 두꺼운 무언가가 사이를 가로막는 느낌이었기에.

지수는 캡슐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으며 맨발로 잔디밭을 빠르게 밟아 나아갔다.

목소리가 지수를 이끄는 곳은 탐사 기간 때엔 한 번도 발을 딛은 적이 없던 곳이었다.

본부에서 지시한 행성 탐사 매뉴얼은 밀코메다 이주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되는 만큼 매우 중요했지만, 세상과 단절되어 충격에 휩싸여 반쯤 미쳐있던 지수에겐 소용없는 말이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책임감을 쥐어 짜내서 겨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곁핥기식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오히려 누군가의 목소리에 이끌려 행성 이곳저곳을 쏘다니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제대로 된 탐사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지수는 언덕을 내려가 호수를 지나고 그 너머에 만들어진 작은 길로 들어갔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하기엔 너무 올곧게 나 있었지만 지수는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환청의 속사임과 의문의 발자국... 그리고 낮선 이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정말... 배키가 사람이 돼서 나타난 건가?!’

해가 진 방향이 다르니 자신의 그림자는 아닐 거고, 거버넌스는 한 행성에 한 명의 밀코인만을 보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성에 있는 낮선 사람은 배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지수는 조명처럼 빛나는 나무 열매가 비춰주는 낮선 이의 얼굴을 떨리는 시선으로 바라봤다.

3등신 정도 되는 비율에 노란 신체... 각자 팔이나 다리에 이따금 화려한 색감을 지닌 것을 제외하고는 노란 색상으로 온몸이 뒤덮인 밀코인...?

배키가 왜 밀코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지, 배키가 맞긴 한 건지, 아니라면 어째서 본인 이외의 밀코인이 코델리아 행성에 존재하는지, 그들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이 안전한 존재인지 등등 여러 생각이 들만했다.

그러나 이런 이성적인 생각은 지수의 절실했던 상황에 발끝도 못 미쳤다.

더구나 모습을 드러낸 낮선 밀코인 또한 양 팔을 활짝 벌리며 지수의 품으로 달려왔다.

지수도 이에 반응했다.

“신이시여! 신이 응답하셨다!!!”

“배키야!!!!!! 나타나줘서 고마워!!!!!!!”

#. 엔터테이너 – 지수 (80일 차)

또 다른 밀코인을 만나게 된 건 천운이었다.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지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나가 주었고, 엉망으로 해부
돼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통신기 또한 조립해주었으니.

센트, 아스거스, 멜린은 처음 보는 기계의 모습에 조금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금
세 감을 잡았고 10분도 안 돼서 조립에 성공했다.

통신기 내부를 봤을 때 부식되거나 달라진 부분은 없어서 따로 고친 것은 없고
통신도 연결되진 않을 거라 말하였지만, 지수는 조립이 다시 된 것만으로도 크게
안도했다.

이대로라면 본부에서 비상 연락을 취하거나 구조대를 보내려 사인을 주더라도 알
아차리지 못했을 테니까.

지수는 자신이 반쯤 미쳤던 이유를 무작정 통신기를 분해해서 조립하지 못하면서 부터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졌고, 끝내 통신기를 배키라 부르고 애원 복걸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라 생각했다.

도저히 혼자서는 헤어 나올 수 없던 악몽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 센트, 아스거스, 멜린에게 고마울 따름이었다.

지수는 친구들에게 최선과 정성을 다해 저녁 만찬을 대접했다.

“비록 우주식이긴 하지만 많이들 드세요!”

80일 차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정신을 반쯤 났던 지수는 아직도 캡슐 안에서 생활하였고 그마저도 본인의 이동 동선을 제외하고는 쓰레기가 가득했다.

음식에 올려진 테이블 위에도 이따금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이고... 위생적이라고 볼 순 없는 환경에 센트와 멜린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눈치를 살폈다.

그때, 아스거스가 가장 먼저 식기를 들며 말했다.

“비록이라니요, 저희 때보다 훨씬 먹음직스러운걸요? 신께서 주신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며 잘 먹겠습니다.”

아스거스의 말이 끝나자 센트와 멜린도 짧은 묵념을 하고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느릿하게 움직이던 손과 식기가 점점 속도 붙었다.

‘배가 고팠던 모양일까? 코델리아 행성에서 식용이 가능한 생물이 있는 건 못 봤는데 그동안 뭘 먹으며 지내온 걸까?’

지수는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이 깊은 우울감에 빠진 탓에 행성 탐사를 게을리 하느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을 테지만.

그냥 누구라도 대화하고 싶었다.

“아까 신이라고 하시던데, 종교가 있으신 건가요?! 어쩌다 우주에 오게 된 겁니까?! 나이는요!? 지구에선 어느 지역에 사셨어요? 혹시 저 아세요? 저 지수라고 완전 킹왕짱 엔터테이너...!”

그동안 밥을 잘 챙겨 먹지 않았던 건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수는 배를 채우기보다 공허했던 마음을 채우는 일이 시급했기에 밥을 먹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동은 식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것으로 이어졌다.

아스거스는 길게 내려진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에 가려져 지수의 물음이 들리지 않은 건지 눈 한 번을 올려보지도 않았고.

결국 입을 연 건 센트였다.

센트는 입에 있는 음식을 꼭꼭 씹어 크게 삼키고는 말을 이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하자면 저희는 모두 신자입니다. 신의 부름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죠.”

“아티스트N 말고도 밀코메다 이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있는 줄 상상도 못 했어요!”

“처음엔 다들 그러죠.”

“처음? 다들...?”

센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지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몇 마디 나눠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아스거스가 눈치를 주며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순 없었다.

고고하다는 단어가 사람이 된다면 아스거스 같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기에, 식사를 하던 도중에 말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으리라 예상한다.

지수는 밥을 다 먹고 다시 물어볼 생각으로 아주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친구들이 화가 나서 떠나버리면 다시 혼자 남게 되니까...’

지수는 주체할 수 없는 말과 호기심을 대신해서 팔과 다리를 쉴 새 없이 떨었고 다른 사람들의 식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스거스와 멜린이 식기를 놓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질문할 타이밍은 아스거스가 자연스럽게 가져가 버렸다.

“보아하니 아직 씨앗을 안 심은 것 같군요.”

아스거스는 씨앗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식사를 하던 내내 고개를 식탁에 박은 것처럼 시선을 전혀 들지 않았는데 언제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엔 틀린 게 없다.

캡슐 안에서만 생활한 흔적.

그럼에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은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향기 나지 않는 금빛 씨앗의 존재.

아스거스는 손을 걷고 일어나며 지수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매뉴얼을 이행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었기에, 지수는 아스거스가 말하는 게 어떤 것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아스거스가 한 마디를 덧붙였다.

“신께서는 과거의 산물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수, 당신을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며 우리는 함께입니다!”

아스거스가 말할 때면 묘하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거대한 단상 위에 올라간 교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고개가 위로 들려졌다.

지수는 코델리아 행성에 온 지 8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스거스와 센트, 멜린은 지구 시간으로 1500년 정도.

그들은 코델리아 행성에 대해서면 빠삭했고 금빛 씨앗을 심기에 적합한 장소 또한 파악하고 있었다.

아스거스의 지시에 따라 지수의 걸음을 이끈 멜린은 금빛 씨앗을 심을 위치를 알려주었다.

지수가 보기엔 주변의 다른 숲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만 이곳의 땅은 정말이지 다른 곳보다 비옥한지, 며칠 만에 덩굴을 내기 시작했고.

금빛 씨앗이 포도 종의 일종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 3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포도를 밟아서 발효시키기에 가장 알맞은 습도와 온도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5일 만에 맛 좋은 와인이 만들어졌다.

놀라운 성과였지만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만큼 아스거스는 쉬지 않았다.

그는 매뉴얼을 전부 외우고 있는 사람처럼 다음으로는 작품 만들기를 추진했다.

다만 이 작품 만들기만큼은 아스거스와 센트, 그리고 멜린을 처음 만나 식사를 하던 날부터 지수가 생각해둔 것이 있었다.

바로 오페라.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지수의 창작자로서의 마음을 연신 끌어냈다.

지수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춤을 추는 것도, 랩을 하는 것도, 전부 잘하고 좋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던 것은 작사.

가장 잘하는 것은 작곡이라는 사실을 팬들은 알고 있다.

지수는 아스거스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멜린의 아름다운 미성, 그리고 센트의 무게감 있는 중저음에 어울릴만한 선율을 생각했고.

자신들을 신자라고 소개한 그들에게 맞게 오페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곡은 원래 공연할 때 사용하려던 캡슐 앞에서 노래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은 로봇 고양이의 화면에 전부 꼼꼼하게 담았다.

완장을 뒤로 하고 비디오를 뒤로 돌리며 몇 번이고 노래를 반복 재생한 지수는

친구들을 만나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낮선 행성에서 혼자 어떻게 지냈을까, 아름다운 코델리아 행성을 전부 잊어버리고 무얼 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처음에는 한눈에 반한 코델리아 행성이지만 두렵고 외로움에 사무치다 보니 그저 낮선 행성으로 전락했었다.

하지만 아스거스와 센트, 멜린을 만나고 나서 함께 씨앗을 심고 재배를 한 뒤 작 품도 만들고 나니까 다시금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이 마음에 담기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가장 다행인 것은,

친구들이 고쳐 준 통신기 덕분에 90일 차에 가까스로 본부와 연락이 닿았다는 거 다.

삐-삐-삐---삐!

그동안 연락이 없던 통신기에서 아주 짧게 일정한 소리를 내더니, 이내 강하고 높은 소리를 내었다.

캡슐 앞에서 자기 작품을 재생해 듣던 지수도, 호숫가에서 놀고 있던 멜린과 센 트도, 거대한 돌 위에 앉아 기도하던 아스거스도, 한 번에 듣고 캡슐 안으로 달려 올 만큼 놓칠 수 없는 높이의 소리였다.

그중에서도 지수는 가장 격하게 반응하며 거버넌스를 불렀다.

1만 명의 사람과 소통의 장은 지수에게 물 만난 고기였고 지금 당장 꼭 소개해주고 싶은 나의 인연과 영웅들이 있으니까!

“거버넌스! 소개해줄 친구들이 있어요! 애길 들어보니까 다른 밀코인은 행성에 있던 생물을 발견한 게 전부인가 본데~ 아!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또 최초가 습관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목청을 높이며 은근슬쩍 자신들을 까 내리는 지수의 모습에 대부분의 밀코인은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 왔는지 보자’ 싶은 심정으로 주시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니 부담스러울 만도 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지수에게 설렘만 줄 뿐이었다.

지수는 계속해서 뜬금없이 중대 발표라도 하듯이 화면을 획- 돌렸고, 화면은 지수의 친구가 된 밀코인 세 명을 비추었다.

“보세요! 저의 코델리아 행성에서 만난 또 다른 밀코인...!”

똑-

그러나 장대하게 시작했던 소개는 초라하기 그지없게 막을 내렸다.

본부 측에서 지수의 통신을 끊어낸 것이다.

‘어라?’

갑자기 끊긴 통신에 지수는 맥 빠지는 의성어밖에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정확히는, 통신이 끊기고 그 뒤에 온 메시지에 의해 난 소리였다.

‘역대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역시 내가 최초!?’라는 생각과 함께 글자를 찬찬히 읽어보던 지수는 메시지를 수락했다.

[거버넌스(이름 설정) 님이 지수 님에게 1:1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지만 궤도 안에 있던 밀코메다N 프로젝트 90일간의 여정이, 전혀 색다른 궤도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5) 힐러 탄 행성- 넓은 바다에 아름다운 해변과 섬이 많다.



#. 힐러 - 탄 (25일 차)

축구공만 한 크기의 로봇 새가 높게 자란 나무를 피해 가며 빠르게 비행했다.

멈춰 선 곳은 탄이 행성에 착륙할 때 사용했던 캡슐이었다.

지금은 정착지 겸 집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늦잠을 자는 주인을 깨우기 위해서 날아온 것이었다.

새는 캡슐이 자신의 둥지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창을 덮고 있는 하얀색 커튼을 입으로 확 펼쳤다.

좌르륵!

덕분에 지구의 두 배는 되는 일조량이 캡슐 안으로 넓게 퍼졌고 제 주인이 투정 부리면서 일어나는데... 일어나야 하는데,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주인이 코빠기도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새는 빠르게 창문 너머로 멀리 날아갔다.

그러나 높은 나무에 가려져서 못 봤을 뿐, 탄은 캡슐의 바로 근처에서 이제 막 숲의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발을 들이고 있었다.

평소의 탄이라면 아침잠을 건디기 매우 힘들어하는 게 정상이었지만, 탐사가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한 시가 아쉬웠다.

하루라도 빨리 아레테 행성의 곳곳을 샅샅이 살펴서 언젠가 NGO 동료들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을 반대했던 기업인들까지 초대하여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기에.

탄은 지구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런 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목격한 모습은 참혹했고 새로운 세상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 와중에 굳이 환경운동을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초기 초청 대상으로 삼은 건 약간 고약한 심보가 섞여 들어간 탓이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지구를 망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오히려 환경 운동을 방해했던 기업인들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절로 찌푸려진다.

탄은 그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짓이 그동안 지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후손에게

잠시 빌린 땅을 얼마나 망쳤는지, 보여줄 생각이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나빠서 그랬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환경을 생각하면 당장 거름으로 써도 모자랄 자들이다.

하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온갖 질병과 범죄, 실 새 없는 교란이 휩쓸고 간 2500년의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다.

물론 변명을 들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기회를 주면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랄까, 그들도 나도 사람이니까.

‘언젠가 아레테 행성에 와서 사람의 손때가 타지 않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나면 이제껏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고 자연을 좀 더 소중히 할 생각이 들겠지?’

탄은 생각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NGO 단체를 후원할 생각도 할지 모른다고.

또한 밀코메다은하 이주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인류가 이동하더라도 그동안 고통 받았던 지구의 복원은 모른 척할 수는 없다.

지구의 복원에는 엄청난 자본과 노력도 필요할 것이기에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탄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우선 하나씩 차근차근 하려 한다.

첫 번째로는 아레테 행성을 탐사하는 일부터.

탄은 가장 높은 것 같은 나무의 크기를 재기 위해 로봇 새에게 줄을 물려 위로 보냈다.

로봇 새는 나무의 가지가 가장 높은 곳을 찾아서 똑같은 위치에서 날개짓하며 자리를 잡았고, 탄은 빠르게 나무 가장 밑에 자리했다.

“300미터... 조금 넘나?”

생각보다 큰 크기는 아니었다.

나무들이 높이 자라지 못하는 것에 이유가 있나, 나무의 중간에 홈 같은 게 없는데 지구의 다람쥐 같은 생물이 없는 걸까? 잎사귀에 가끔 보이는 둥근 구멍은 벌레가 파먹은 흔적일까?

나무 하나만 해도 알아봐야 할 게 산더미였다.

탄은 알아내는 정보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노트에 적었고 다른 공간을 탐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때! 탄의 귀에 맑은 음률 소리가 들렸다.

팅, Ting, 통-

어디에서 들리는 건지 단번에 파악할 수 없었다.

아레테의 온 행성에서 들렸기에.

하지만 빗방울이 점점 많이 떨어지면서 이내 소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신비롭게도 빗방울이 앞사귀에 떨어질 때마다 맑은소리가 들린 것이다.

빗방울의 크기, 떨어지는 속도, 앞사귀의 모양과 높낮이.

각 상황마다 모두 다른 음을 내었고, 이를 지켜보던 탄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턱이 빠질 듯이 벌렸다.

‘자연이 빗소리를 담아주다니... 놀라운 광경이 아닌가? 아마 최초의 지구도 이랬겠지? 아무것도 파헤쳐지지 않고 무엇 하나 망가지지 않고 조용히 생명을 품었겠지.’

감동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인 ‘앞사귀에 있는 구멍은 벌레가 파먹은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풀렸다.

그건 벌레가 파먹은 흔적이 아니라 강한 빗방울이 지나가면서 생겨난 것이었다.

‘잠깐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구멍이 뚫린 거라면 빗방울이 더 강하고 날카롭게... ’

순간 탄의 등줄기에 소름이 올랐다.

조금 전까지 아름답게 울리던 음률은 어디 가고 아이가 장난스럽게 피아노를 마구잡이로 뚱뚱거리는 소리로 변하더니, 이내 귀를 넘어서 머리통이 울릴 정도로 시끄러운 굉음과 우주복을 뚫을 기세로 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래테 행성의 비는 무게감도 지구의 3~4배였고 강수량도 마찬가지였다.

비를 맞으며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은 순식간에 종아리의 절반까지 올라온 물의 양을 보고 깜짝 놀라며 서둘러 캡슐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캡슐에 도착하기 전, 이번에는 마치 대기층을 뚫고 우주로 나왔을 때처럼 주변의 온 소리가 한 번에 사라졌다.

우주복 위로 강한 빗줄기 또한 느껴지지 않자 탄은 위를 올려다봤다.

그러자 탄의 머리 위로 드리워진 거대한 물체가 보였다.

‘우주선은... 아닐 텐데. 버섯?’

버섯을 뒤집어 까면 보이는 선처럼 여러 주름이 있었기에 들었던 생각이었다.

그러나 모두 틀렸다.

탄의 머리 위를 보호해준 것은 300미터밖에 되지 않았던 나무였다.

지금은 1000은 넘을 것 같은 크기로 갑작스럽게 자라난 나무에 탄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마법도 아니고 갑자기 커진 나무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속도와 무게의 비... 본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레테 행성의 자연은 서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리는 행성이라면 작은 크기의 식물이나 생물은 살아갈 수 없었을 거다.

그런 아레테 특성에 맞게 성장한 어떠한 나무가 비가 오면 크기를 두 세배 부풀리고 다른 개체를 보호해주는 거라면?

탄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보았다.

‘만약 하나의 뿌리를 가진 거대한 개체라면? 뿌리에서 반경 미터를 정하고 농사를 짓는다면? 비가 와도 나무의 개체들이 팽창하면서 땅을 보호해주지 않을까?’

그때 번뜩인 아이디어가 생각한 탄은 홀로그램 메모를 켜고, 우주 헬멧에 글자들이 띄워졌다. 한 글자씩 꼼꼼하게 적어 내려가는 탄의 얼굴엔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탄을 지켜보던 로봇 새의 붉은 두 눈이 반짝인다.

그 시각 지구, 거대한 전광판과 수백 개의 화면이 있는 거버넌스의 연구실.

그중 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던 연구원이 거버넌스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화질이 좋진 않지만, 임시로 붙여 놓은 카메라는 움직입니다. 다만 아직 통신은 오작동 중인데... 구조대 보낼 준비를 시작할까요?”

연구원의 말을 들은 거버넌스는 곰곰이 생각했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된 밀코메다 이주 프로젝트인데 밀코인 1만 명이 행성에 도착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통신이 오작동하게 되었다.

만일을 대비해서 애완 로봇에 붙여 놓은 카메라가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인데...

이건 말 그대로 임시라 본부에 화면을 얼마나 보여줄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수는 밀코메다N 대원이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성의 특성을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한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복귀하게 된다면...'

거버넌스는 고심 끝에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선 소중한 걸 내어줘야죠. 구조대는 없습니다."

#. 힐러 - 탄 (60일 차)

탄은 오두막집 근처에 자리를 잡고 심어 놓은 벼를 베었다.

지구였다면 몇 달은 걸렸겠지만, 아레테 행성의 일조량은 지구의 두 배 이상이라 곡물이 자라는 속도가 남달랐다.

이 행성에서 따로 얻은 씨앗이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지구의 네팔에서 가져온 씨앗이었지만 아레테 행성의 일조량이 남달라서 가능했던 거였다.

씨앗은 환경 운동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네팔에서 받았던 정제된 씨앗으로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지구에서 난 씨앗임은 틀림없었다.

이 정제된 씨앗은 탄이 아끼고 아끼던 보물 중 하나였는데.

아레테 행성에 오자마자 이 행성에 심으려고 그동안 아껴왔다는 것을 탄은 단번에 깨달았다.

한눈에 봐도 반할 만큼 황홀했지만, 탐사 기간에 주위를 둘러본 행성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넓은 바다와 아름다운 해변이 가득한 모습은 지구의 하와이나 사모아섬을 생각나게 했으며,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행성을 보면 한국어로 '덕분에'라는 단어가 떠올랐기에 고대어로 '덕'이라는 뜻의 아레테라 불렀다.

아직은 캡슐 근처의 땅만 농사가 가능한 걸 확인하였지만 점차 범위를 넓혀가 볼 예정이다. 예로부터 어떤 지역이든 완벽한 정착을 결론짓는 건 자급자족이 가능한지이니까.

이건 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시작이자,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였기에 탄은 벌써 기대감이 부풀어 올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때 비가 조금씩 내리며 음률이 점점 커졌다.

이제는 익숙한 듯 소리를 알아챈 탄은 지금까지 수확한 벼만 들고 서둘러 캡슐로 향했다.

물론 비가 내릴 때 부풀어 오르는 거대한 나무 개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경을 지정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었지만.

데이터가 더 쌓이기 전까진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좋았다.

다행히 탄이 캡슐이 도착해서 문을 닫자 우수수-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렸다.

한시름 놓은 탄은 테이블 위에 벼를 올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어느새 돌아온 로봇 새가 벽난로를 앞에서 날개를 부르르 떨고 있는 게 보였다.

'자기가 진짜 새인 줄 아나...'

로봇 새의 귀여운 행동에 탄은 작게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며칠 전에 먼저 수확한 벼로 시범 삼아 만들어놓은 막걸리가 지금 딱 알맞게 발효되었을 테니, 오늘 뚜껑을 열어볼까 한다.

밤이 길 예정이었기에 시간을 달래기 딱 좋은 친구였다.

밀코메다N에게는 행성에 도착한 날짜별로 해야만 하는 매뉴얼이 몇 개 존재했는데 50일에는 씨앗을 심어보는 것이고 75일에는 각자 작품을 만드는 일이었다. 지금은 60일 차로 그 중간.

심어야 하는 씨앗은 벼를 심었던 곳 옆에 자리를 마련해 성장을 기다리는 중이고, 사실상 잠시 쉬어도 되는 날짜였지만.

탄은 원래 기획했던 작품을 할 수 없어서 작품의 기획 단계부터 다시 만들어야만 했기에 여유가 없었다.

2500년대 지구에서 환경 운동가가 하는 일은 '오염을 최소화할 방법 찾기' 등이었다.

그러나 현재 아레테 행성은 이미 너무 깨끗하고 오염된 공간이 없었으며, 환경 운동가로서 너무나 사랑하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완벽한 행성에서 매뉴얼대로 작품을 만든다면 오히려 행성의 자연을 망치는 일이 아닐까.'

탄은 아레테 행성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그러나 그렇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75일째 있을 '작품 만들기'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물가에서 발견한 생명체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그것은 지구로 따지자면 따개비 같은 생물이었는데 놀라운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한편 개체수가 늘어나긴커녕 나날이 줄어만 갔다.

탐사하는 와중에 신경 써서 살펴본 결과 녀석들이 하루에 한 번씩 잉태와 죽음을 번갈아 가며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삼일 정도 살게 된 녀석을 통해 육지에서 서식해야 하는 종족인 것을 알아냈다.

비록 삼일이었지만 그 개체는 손과 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물가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손과 발을 갖기 전에 죽게 된 거고, 도망가볼 겨를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던 안타까운 개체들.

더구나 아레테 행성의 비의 강수량은 상상을 초월하고 물가 근처에는 자신의 몸을 2~3배로 부풀리는 나무가 없었기에 보호받을 수조차 없던 상황.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탄은 해당 개체에 배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한 마리만 육지로 옮겨줬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배기는 잘 자라났으며 지구의 사슴과 너구리를 뒤섞은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까지 확인 하고나자 탄은 아레테 행성에서 자신이 만들 작품 주제를 확신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나의 작품!’

아주 최소한의 손길로 새로운 개체를 늘려가는 것이다.

어딘가에는 배기처럼 육지에서 서식하지만 태생이 물가에서 자라난 동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탄은 환경운동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 기획을 만들어냈다.

위와 같은 동물들을 도와주면서 도감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도감을 작성하는 동안에는, 전쟁 중인 기자가 된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할 것이다.

기자들이 눈앞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게 진실을 알리는 존재만이 된 것처럼.

동물의 양육강식의 세계에 너무 깊숙하게 파고들지 않고 개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도움과 도감 기록 만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프로젝트 제목은 '사람의 손을 타고 비로소 태어난 생명체'이다.

이 도감에는 생물의 이름, 특징, 사람과의 친밀도, 각 종족의 천적과 양육강식의 피라미드 등등 작고 사소한 것부터 거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아레테 행성 생태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작은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된다.

탄은 언젠가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생물과 개체의 기록을 담는 것을 목표로하고, 매일 다른 시간과 다른 타이밍에 행성 탐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들을 발견했다.

두 다리로 이족보행을 하고, 두 개의 팔이 있으며, 얼굴이 우주 헬멧을 쓴 것처럼 둥글고 아이의 몸을 가진 것처럼 3등신 정도의 크기인.

우리 밀코인과 비슷한 체형인데 노란색인 우리와 다르게 화려한 색감으로 뒤덮인... 묘하게 눈이 매서운 존재를.

탄은 잠시 고민했지만 아레테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을 도감에 기록하겠다고 다짐했던 목표를 떠올리며, 낯선 존재에게 한 발짝 다가가 물었다.

“넌 대체 누구니?”

#. 힐러 - 탄 (90일 차)

할라아사나, 다누라아사나, V업 등등.

탄은 요가로 몸을 풀어주며 지구보다 두 배 더 눈부신 아침을 시작했다.

오늘은 아레테 행성에 온 지 90일째.

슬슬 본부로부터 지구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테니 도감 작업 마무리에 심열을 기울여야만 했다.

행성에 있는 모든 개체와 생물을 전부 기록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지만, 아직 작성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책상 앞에 앉았다.

도감은 총 두 권으로 구성했다.

하나는 기본 도감과 또 다른 하나는 기밀판.

기밀 판에 등재된 개체나 생물의 공통점은 사람과의 교류성이 적어 필요 이상의 공격성을 보이고, 야행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한 편으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 또한 존재한다.

사람들에게 알 권리가 있다는 건 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기밀 판에 작성된 개체나 생물에 대해 알게 된다면 괜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따로 기록하였다.

물론 위험할 수 있다. 공격성이 높은 존재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따로 기재한 건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이 생물이 본부의 컨트롤 하에 앞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아직은 임시로 혼자 파악한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이 모든 부분은 본부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에 따로 기재한 것이다.

거버넌스라면 분명 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 믿으며... 탄은 기밀 판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밀 판에 있는 위험한 존재들 속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격성 70%, 잔혹성 100, 도구 활용 능력 90% 등등.

잔인하면서도 머리가 좋아서 판단 능력이 인간만큼 있고 이족보행을 하므로 나무

를 타는 것에도 능숙하다.

공격성이나 잔혹성이 더 높은 존재도 한 개체 존재하지만 탄은 이 녀석들이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형형색색의 색감을 가진 밀코인.

지금은 '변종 밀코인'이라 부르겠다.

탄은 동물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덕분에 배기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 때문에 생명을 잃는 존재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를 작품으로 삼으며 연구하고 도감을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변종 밀코인의 생각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생김새 하며 느낌이 사람과 같아서, 우리처럼 지구에서 온 존재일까도 생각해봤지만.

녀석들은 영어도, 한자도, 한글도, 독일어도, 고대어도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이따금 괴성도 함께 섞어가며.

어느 정도 듣다 보니 규칙적인 흐름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옆에서 더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공격성을 보였다.

변종 밀코인은 처음부터 달려들지 않고 우선은 상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는 코를 킁- 흘쩍였다.

처음에 그들이 코를 흘쩍이는 행동은 큰 의미가 없다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무작정 본능대로 움직이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상대를 파악하던 시간이고 판단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했다.

야생 동물 중에서도 포식자가 하는 행동.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던 탄은 묘한 긴장감에 걸음을 멈췄고 녀석의 눈을 주시하며 뒤로 조심스럽게 물러났다.

환경 운동가로서 오지도 마다하지 않고 다니다가 악어라던가 사자 등, 여러 포식자를 다양하게 만나봤던 탄은 알 수 있었다.

런!

탄은 캡슐을 향해 죽을힘을 다해 뛰었고, 다행히 물가가 사이에 있었던 덕에 녀석이 쫓아오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갔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캡슐에서 나가지 않았다.

냄새를 맡은 야생 포식자가 주위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끝내 녀석들에 대해서는 알아낸 게 많지 않다.

이족보행을 한다는 것과 잡식을 한다는 것, 그리고 피부색이 화려할수록 잔혹성이 높다는 사실.

탁.

탄은 알고 있는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적고 펜을 내려놓았다.

홀로그램에 언어 인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탄은 아날로그 방식처럼 손으로 직접 적는 게 편했다.

손은 조금 아프지만 그래서 더더욱 직접 한 기분이랄까.

의외로 할머니 같은 마인드를 가진 탄은 기지개를 쭉 켜다가 어디선가 들리는 규칙적인 소리에 뒤를 돌았다.

‘저긴... 통신기가 있는 위치인데?’

그와 동시에 통신기가 소리를 낸 게 처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껏 본부에 보고하기 위해 일정한 날짜마다 전송을 보냈을 땐 별다른 소리가 없었고, 탄은 통신기가 애초에 소리 없는 기계인 줄 알았다.

그런데 90일 만에 갑자기 내다니... 탄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일단 다가가 보았다.

그때 다른 밀코인의 목소리까지 한 번에 몰려들었다.

-드, 드디어 연결된 거야?!

-영영 지구로 못 돌아가고 죽는 줄 알았다고ㅠㅠ

5년 동안 함께 거버넌스의 연구실에서 생활을 보냈을 동료겠지만 친하게 지내던 몇몇 이외에, 1만 명의 목소리를 전부 아는 것은 아니었기에 누구인지 파악할 순 없었다.

단순히 밀코메다N 중 한 명이라는 것밖에.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탄은 거버넌스의 명칭을 부르며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다.

“거버넌스! 제가 지구로 돌아가기 전...”

그러나 90일 만에 연결된 통신에 마음을 놓은 밀코인은 각자의 말을 하기 바빴고, 그중에 몇은 목 놓아 우는 바람에 모든 소리가 섞였다.

탄은 통신기가 망가졌던 것도 모르고 본인이 할 일에 집중할 만큼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특히 우는 밀코인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번에도 역시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다른 밀코인들의 음성을 모두 껐다.

자신에게만 안 들리게 한 방법이었으며 전체 음소거하면 되었기에 버튼 하나로 처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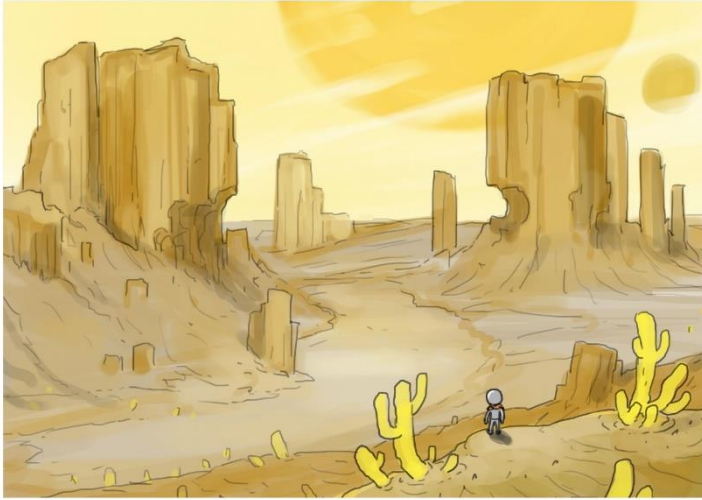
이제야 조용해진 기분을 느끼며 탄은 다시 입을 열었다.

“거버넌스, 제가 지구로 돌아가기 전에 NGO 단체를 도와 지구 복원에 힘쓸 기업인들 리스트 좀 알아봐 주세요.”

지구로 돌아가면 하루라도 빨리 아레테 행성의 멋진 모습에 대해서 알리고 수많은 기업인에게 후원받을 생각이다.

지금 탄의 머릿속에 한 가지의 생각이 더 있다면... 본인이 다시 아레테 행성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자기 작품과 아이들이 부디 잘 살아있기를.

3) 이노베이터 스티브 행성- 화성처럼 사막 같은 행성이지만, 희귀한 광물들이 많이 발견된다.



#. 엔지니어 - 스티브 (30일 차)

'흠... 이 탐사경과 보호복으로는 안 되겠어. 기능을 좀 개선해야겠군. 탐사경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빛의 영역이 너무 적어. 그리고 탐사경과 기지에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백업하고, 탐사한 지역의 지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면 좋겠어. 우주복은 뭐가 이렇게 화려해? 예비 우주복까지 총 5개의 우주복 디자인이 왜 다 다른 거지? 안드로메다인들하고 클럽 파티라도 하는 줄 아냐? 정신이 다 산만해지는데. 급한 일을 마치고 나면 전부 검은색으로 바뀌야겠어.'

스티브는 한 시도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행성에 도착한 뒤로 자잘한 특이점부터 통신이 끊겨버리는 등의 큰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무엇 하나 스티브의 관심을 오래 잡지는 못했다.

새로운 행성이라는 곳은 엔지니어인 스티브에게 놀이동산이나 다름없었으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가봐야 할 곳이 넘쳐났다. 다행히도 스티브가 도착한 행성의 자전 속도는 지구보다 3시간 정도가 긴 편이었고 더 많은 시간을 연구에 쓸 수 있었다.

오늘은 그동안 설치해둔 관측 장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신기를 점검해볼 계획이라 평소보다 빠르게 아침 준비를 마쳤다.

새로이 생성된 밀코메다 은하는 아직 미지의 세계이다. 수천 년 동안 지구의 과학자들이 알아냈던 우주에 대한 지식은 이제 새로운 관측을 기반으로 다시 쓰여야 하기에, 스티브는 우주 만원경과 추진 로켓을 조립하여 발사하기로 계획하며 가장 좋은 지반을 고르고 다녔다.

지구에서부터 가져온 에어보드는 활용도가 좋았다. 가장 좋은 지반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곳을 여러 번 가보는 게 좋았고, 사막과도 같은 지형이라 로버 같은 걸 이용했으면 불편했을 테니까.

오늘도 스티브는 다빈치를 에어보드에 태우고 모랫바닥 위를 서핑했다. 그런데, 퍽!

끝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수평선을 보이는 땅과 드넓은 하늘, 듽성듬성 서 있는

선인장은 똑같은데 허공의 뭔가에 부딪혀서 땅으로 떨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땅에서 몸을 일으켜 허공을 만져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었고 주먹으로 두들겨 보니 '퐁퐁' 같은 소리를 내었다.

분명 뭔가가 있는 건 확실했고 소리로 가늠해봤을 때 두껍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힘을 줘도 뒤로 밀려나지 않았으며, 스티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데 묘하게 벽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버티고 버티다가 한 발짝 뒤로 밀려나니 뒤에도 벽인 생긴 느낌이 들었다.

당황한 스티브는 주위를 살폈고, 똑같이 사막과 하늘의 풍경을 띄고 있는 방향 말고 파란 하늘만이 있는 곳으로 한 발 내디뎠다.

절벽이라면 그대로 떨어질 위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벽 틈 사이에 갇히기 일보 직전이라 다른 선택지가 없다.

스티브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서둘러 다음 발을 내디뎠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기분.

분명 바닥이 없는데 발밑을 뭔가가 받쳐주는 느낌을 받았다.

계속 걸어가니 마치 하늘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환상에 휩싸이기도 했다. 오래 걸리지 않아 현실로 돌아왔지만.

털썩-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음 발을 내디뎠는데 거긴 절벽이었다.

다행히도 에어보드에 블루투스를 연결해놨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절벽 밑에 있던 선인장에 그대로 박을 뻔했다.

지구의 선인장이었다면 우주복이 보호해주었겠지만 이곳의 선인장은 또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되도록 주의하는 게 옳았다.

큰일을 넘긴 스티브는 자신이 떨어졌던 위를 올라다봤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본 결과 자신이 부딪혔던 무형의 벽과 직접 걸었던 하늘은 '판'이라는 걸 확인했다.

간단 키트를 챙겨온 스티브는 판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반대편이 비출 만큼 깨끗하게 정제된 광물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이내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 파악했다.

지구에 카시미르 효과라는 게 있다. 진공인 공간에서 두 개의 판이 있을 때, 원래는 아무런 힘도 없어야 하는데 두 판 사이에서 미세한 인력이나 척력이 발생한 것.

너무 미미해서 측정이 안 되는 게 정상이지만 이 행성에서는 눈에 보일 만큼 움직였다.

'전자기적인 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게 분명한데...'

스티브의 눈이 호기심에 번뜩였다.

대체 뭐가 판들을 급속도로 움직이게 한 건지, 판의 광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 할 게 너무나 많았다.

지구의 인류가 이주했을 때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면 녀석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통제할 방법도 마련해야 하니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스티브는 곧장 에어보드를 작동해서 캡슐로 돌아갔으며 자신이 겪고 돌아온 일들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논문의 이름은 '새로운 행성의 카시미르 효과에 대한 이색 특징 정의'

언젠가 이 행성으로 올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게 분명했기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금 가장 유력한 전자기적 인력은 주변에 있던 선인장이나 지구에서부터 가져온 에어보드였기에 스티브는 에어보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등줄기에 빠르게 오른 서늘한 기운에 넋을 놓고 말았다.

블루투스 기능이 켜진 게 아니라 버튼이 뜯겨 나간 것.

동물의 이빨 모양 그대로...

뒤를 돌아 애완 로봇이자 두더지인 다빈치가 초점 없는 눈빛으로 뭔가를 아그작 아그작 씹고 있는 게 보였다.

“너... 뭘 보고 있는 거야?”

#. 엔지니어 - 스티브 (50일 차)

스윽- 스윽-

스티브는 손에 쥘 금빛 씨앗을 왼쪽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보았다.

한 시도 눈을 떼지 않는 집중력.

그러나 스티브의 시선이 닿아 있는 것은 씨앗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만을 멍뚱히 쳐다보고 있는 로봇 두더지였다.

그에 반해 로봇 두더지는 스티브를 향해 고개를 두었지만 시선만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YES]

로봇 두더지는 스티브가 둔 [YES]와 [NO] 사인 중에 확실히 왼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본부의 거버넌스로부터 허락이 떨어진 것이다.

지구 시간으로 50일 전에 이 사막을 뚫은 행성에 착륙하자마자 통신기가 고장 났다.

그러나 지구에서도 손꼽는 엔지니어 겸 과학자인 스티브는 당황하기보다 행성을 관찰하고 조사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는 와중에 로봇 두더지인 다빈치의 특이점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선인장에 부딪힐 뻔한 스티브를 구해준 에어보드.

처음에는 자신이 블루투스 기능을 켜 놓은 줄 알았지만 캡슐에 돌아와서 살펴보니 전원이 뜯겨 나가 있었다.

전원을 씹고 있는 건 애완 두더지인 다빈치였다. 그러나 동물의 특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씹어 먹은 거라 보기엔, 이노베이터인 스티브가 이미 막아 놓은 설정

이었다.

‘동물이 나사 같은 거 삼켜서 없애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로봇 동물을 좋아하는 건데 굳이 동물의 안 좋은 특성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지.’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스티브의 애완 로봇인 다빈치가 한 거다.

스티브는 미리 설정해 놓은 기능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 다빈치를 꼼꼼하게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내 다빈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고, 본부 측에서 통 신기가 고장 난 것과 동시에 임시 기능을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거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걸 발견해 버렸잖아?’

다른 밀코인 1만 명도 이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단 하나다.

현재 본부와 소통이 되는 것은 본인뿐일 테고 이때를 노려서 빨리 할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건 좋은 거고, 나에게 아주 당연한 거니까.’

스티브는 본부가 자신을 보고 있을 눈인 다빈치를 데리고 행성 곳곳을 탐색했으며 다른 생명체의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간단한 채소나 과일을 심어서 수확이 가능한 땅인지를 알아봤고 드디어... 금빛 씨앗을 심을 날이 다가왔다.

씨앗의 정체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본부가 다른 작물과 함께 심어보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락한 씨앗이니 다른 씨앗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 예상할 뿐.

스티브는 긴 숨을 차분히 들이마시고는 캡슐의 문을 오픈했다.



지구로 따지자면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행성이었기에 문을 열자마자 모래바람이 확 몰려왔다.

스티브는 자연스럽게 모래바람을 지나서 이전에 작물을 심었던 장소로 이동했다.

작물들은 모두 지구에서 가져온 비료들을 섞어서 키워냈지만, 절반 정도는 재배에 성공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실패했다.

확률은 50대 50.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이 행성의 모래로만 금빛 씨앗을 완벽하게 길러내야 하다니...’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스티브는 웃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위험한 도전은 스티브에게 혈기를 줄 뿐이다.

성공하기 어렵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도전이고 역사에 기록될 일일 것이기에.

스티브는 여러 논문에 기록될 자기 모습을 상상하며 캡슐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다급하게 돌아보았다.

규웅?

이상한 소리를 내며 나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로봇 두더지인 다빈치였다.

'캡슐 밖에서는 얼굴을 위로 드러내지 않던 녀석인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얼굴을 내밀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규웅? 규웅? 규웅? 규웅?

갑자기 다빈치의 옆으로 두더지의 머리통이 여러 개 더 올라오더니 녀석과 같은 소리를 내었다.

'다빈치가 그새 번식에 성공한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이 행성에 원래 있던 생물?'

스티브는 두더지들을 향해 단숨에 달려들었다.

"한 마리만 해부하자!!"

새로운 행성에서 발견된 온전한 생물이란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당장에 거버넌스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도 다빈치를 통해 보고 있을 것임을 확실했기에, 스티브는 더더욱 행성의 생물 두더지를 생포하려 했다.

그러나 이노베이터로 지구에서 이름을 떨친 스티브는 두더지 잡기엔 재능이 없던 모양이다.

결국 한 마리조차 손 한 번 스쳐보지 못하고 금빛 씨앗을 심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이 시간은 햇별이 가장 잘 들 순간과 여러 데이터를 통계 내서 만들었기에 고작 두더지 때문에 놓칠 수는 없는 거였다.

하는 수 없이 스티브는 일단 금빛 씨앗을 심은 다음에 나중에 적외선 도구 등을 이용해서 두더지를 반드시 포획하겠다고 다짐하고, 원래 향하던 공간으로 발을 옮겼다.

행성에서 가장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곳, 가장 양지바른 토양, 비록 확률은 50 대 50이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스티브는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고 금빛 씨앗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특... 합!

그런데, 금빛 씨앗이 닿은 곳은 물기가 전혀 없는 사막의 모래가 아니라 두더지의 입속.

한참을 쫓기던 이마에 상처 난 두더지가 실실 웃는 듯한 표정으로 금빛 씨앗을 먹어버리더니, 그대로 땅속으로 사라졌다.

“야! 내 씨앗 돌려줘!!”

스티브는 두더지가 나왔다가 사라진 흠을 손으로 미친 듯이 찼다.

그러나 흠은 옆으로 치워도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 이내 다빈치가 스티브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다.

‘따라오라는 건가...?’

스티브는 속는 셈 치고 다빈치가 이끄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도착한 곳은 캡슐 밑에 자리한 동굴이었는데, 이렇게 깊은 동굴이 있었다면 그 위로 캡슐을 정착하지 않았을 거라 말할 정도로 거대했다.

이 행성에 싱크홀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그대로 추락해서 캡슐이 산산이 조각날만한 높이였기에.

스티브는 동굴의 크기와 모습에 감탄하며 다빈치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광장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 수십 마리의 두더지를 발견했다.
그들 사이에는 금빛 씨앗을 가져간 이마에 상처 난 두더지도 있었고, 스티브는
어김없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마에 상처 난 두더지의 행동이 더 빨랐다.

녀석은 금빛 씨앗을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심었고, 다른 두더지와 함께 둥근 원을
만들며 민속춤이라도 추듯 덩실덩실 움직였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스티브는 달려들던 몸을 멈추고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때, 드드드득... 드드득!!!!!!

거대한 진동이 울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꿈이 아님을 확신했다.

싱크홀은 없는 행성일 거라 생각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동굴은 무너질 듯 흔들렸
고 스티브는 다빈치를 얼른 품 안에 안았다.

“너희들도 그만하고 얼른 위로 올라가!”

외계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가.

스티브는 수십 마리의 두더지가 생매장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지 않았기에 녀석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두더지들은 이마에 상처 난 두더지의 지휘에 맞춰서 추던 춤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격하게 움직였다.

그러던 때, 금빛 씨앗이 터졌다.

이후는 순식간이었다.

금빛 씨앗에서 녀쿨 줄기가 사정없이 튀어나오더니 동굴의 벽면을 타고 뻗어갔다.

그리고 이내 삭막했던 온 동굴을 둘러싸서 푸르른 공간을 이루어냈고 녀쿨의 열매도 맺었다.

금빛 씨앗의 정체는 포도였다.

스티브는 순식간에 이루어진 광경을 보며 두더지들에게 말했다.

“너희 그 이상한 춤의 정체가 농사 기원이었구나? 잘했어! 특별히 해부는 미뤄줄게. 일단 나와 이 행성을 탐험하자!”

고작 50일 만에 성과.

씨앗을 심은 지 하루 만에 정체를 파악한 것과 생물 두더지의 발견.

스티브는 누구보다 먼저 얻었을 성과에 크게 기뻐하며 날뛰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냄새를 맡은 불청객도 함께 얻었다는 것을 모른 채.

"큘-"

#. 엔지니어 - 스티브 (90일 차)

스티브는 얼굴에 휴먼지를 잔뜩 뒤집어쓴 채로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갔다.

[비록 나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함께 동봉한 자료만은 필히 진실이었음을...]

새로운 행성에 와서 매뉴얼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구의 인류를 이주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늘 노력했다.

그러나 행성에 도착한 첫날 본부와의 통신이 끊겼으며 같은 밀코인들끼리도 전혀 연락하지 못한 채 90일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다른 밀코인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스티브만은 애완 로봇의 특이점을 눈치채고 본

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내는데 성공했는데.

그뿐이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원래대로라면 지구로 복귀를 시도할 90일이 다 되었음에도 통신기는 고쳐지지 않았으며 80일 이후부터는 본부에서도 별다른 신호를 보내오지 않아서 정처 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스티브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늘 무언가를 알아내고 파악하기 바빴는데, 자신이 아무리 알아내봤자 우주 속에 문힐 보물이라는 걸 깨달아버렸기에.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3일 정도를 보내다가 긴 한숨을 쉬었다.

그때 막혀 있던 뇌에 산소가 한 번에 들어가며 두뇌가 회전했고, 이전에는 놓치고 갔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논문을 보내는 건 시도해볼 수 있잖아!’

스티브는 지구에서 뛰어난 엔지니어였다.

물론 가장 두각을 보인 분야는 메타 관련 인터페이스와 각종 부대 장비 개발이었

지만, 우주학에 단번에 매료돼서 이곳까지 온 거다.

언젠가 고대 점성술에 머무르던 시대부터 천문학을 거쳐 우주학으로 발전하기까지 호기심과 끈기로, 남다른 관점으로 공헌해온 과학자들의 계보를 잇는 꿈 또한 잊지 않았다.

공부부터 시작해서 목표까지 잊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달라진 점은 '내가 지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상황' 뿐인데, 이건 나의 지식과 목표에 티끌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왜 잊어버렸던 건지...'

스티브는 며칠 동안 낭비한 시간을 아까워하면 죄책감을 원동력 삼아 더욱 서둘러 캡슐 분해 및 크기별 재조립 설계도를 측정해 나갔다.

90일째인 날까지 통신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이 행성에서 평생 있어야 할 거, 시간은 많았다.

90일까지 기다려보다가 결국에 통신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구에서부터 타고 온 캡슐을 분해해서 논문이 들어가고 블랙홀을 안전하게 통과할 만큼의 크기로 재조립한 뒤 혼자 떠나보낼 작정이었다.

어차피 필요한 재료는 기존 캡슐에 다 있으니까.

다시금 열정을 내보이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90일 당일.

역시나 통신이 연결될 것과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24시까지 기다려볼 작정이었지만 하루 먼저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너무 고대하며 기다린 탓에 더 일찍 지쳐버린 까닭도 있었다.

스티브는 장비를 들고 캡슐의 가장 바깥 나사를 하나 돌려 뺐다. 푹...

손바닥 위로 떨어진 작은 나사 하나.

평범한 부품일 뿐인데 어쩐지 감회가 남달라서 다음 나사를 돌릴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캡슐 안에서부터 익숙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어색한 통신음이 들려왔다.

삐- 삐- 삐- 삐-

일정한 타이밍에 울리는 날선 소리를 알아차린 스티브는 곧장 캡슐 안으로 들어갔고, 입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동시 입장하는 밀코인의 목소리를 만났다.

90일 만에, 극적으로 통신이 연결된 것이다!

조금만 더 빨리 캡슐을 분해했으면 통신이 돌아왔어도 자신은 지구를 향해 이륙하지 못했을 거란 생각에, 스티브는 짙내나는 눈물을 머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부 분해한 우주 캡슐을 사람의 힘으로 그것도 혼자서 완벽하게 복구하리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만약 분해한 캡슐을 복구했다 하더라도 우주로 나가서 산산히 흩어질지 알수 없는 일이니.

스티브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하며 입을 열었다.

“다들... 살아 있었구나... 다행이야, 다행...!!!”

어쩌면 스티브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그 누구보다 지구로 돌아가고 싶었다.

시원한 맥주 한 잔도 생각나고 아직 만들어보지 못한 기계들이 많이 생각나서 아쉬울 따름이었다.

스티브는 뺏던 나사를 서둘러 꺾꽂이 조이고 행성을 떠날 준비를 했다.

정이 든 생물 두더지들을 각자 가족과 생이별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한 마리도 못 데려가는 건 아쉬웠지만.

언젠가 다시 이 행성에 온다면 더 많은 가족을 이루고 있길 축복하며, 스티브는 캡슐에 올라탔다.

“그럼 제군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아디오스!”

척-!

스티브는 생물 두더지들의 배웅을 받으며 행성을 떠났다.

4) 크리에이터 캐리 행성- 추운 겨울 행성처럼 보이지만, 하얀 바위와 모래로 이뤄진 포근한 행성이다. 하얀 바위는 대리석처럼 생겼지만, 가볍고 단단해서 건축에 최적화다.



#. 크리에이터 (건축가) - 캐리 (1일 차)

5년 전, 밀코메다 이주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연구소에서 훈련받기 시작할 때부터 각자 행성으로 가면 해야 하는 큰 맥락은 정해져 있었다.

정착하기, 탐사하기, 연구소에서 지급한 금빛 씨앗을 심기, 작품을 만들기,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본부에 보고하기 등.

캐리는 매뉴얼을 받은 첫날부터 밥을 먹을 때나 잠자기 직전에도 단 한 번 눈을

때지 않았다. 만약 훈련하는 등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새기며 생각을 멈추는 일이 없었다.

남들은 모르지만 자신의 성격에는 유독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었기에.

‘정착과 탐사라...’

두 과정은 바로 잇달아 있지만 거버넌스는 굳이 분리를 시켜 놓았다.

건축가인 캐리 입장에선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선 주변을 돌아다녀서 위험요소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행동은 탐사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라니 이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까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해본 덕분에, 캐리는 블루버진 스페이스호를 타고 밀코웨이를 지나 행성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이미 할 일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고.

계획대로 행성에 도착한 첫날부터 망설임 없이 로버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정착’ 하기 위해 낮선 행성의 주위를 둘러보는 건 당연한 과정.

‘탐사’는 주변 식물의 성분을 분석해보거나 미리 지정해 놓은 의문의 구역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는 것 등이라고 구분한 것이다.

만약 연구소부터 확실하게 생각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시간을 낭비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캐리는 스스로가 감탄스러웠다.

하루라도 늦게 움직였다면 이 멋진 풍경을 놓쳤을 테니.

“안 그래? 가우디?”

캐리는 로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애완 로봇 카멜레온에게 물었다.

가우디 역시 시원한 바람에 기분이 좋은지 숨을 크게 들이시는 게 보였다.

지구로 따지면 가을과도 같은 날씨. 은은하게 비추는 주황색 불빛은 하얀색으로 덮힌 행성 전체를 안락하게 만들었고 어두운 하늘에 자리한 오랑색의 오로라는 황홀했다.

캐리는 행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느끼기 위해 자율 주행으로 되어 있는 로버를 오픈로드로 바꾸고 핸들을 양손으로 잡았다.

그러자 얽은 틈을 두고 허공에 떠 있던 로버의 바퀴가 땅에 닿았고 바퀴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행성의 거친 지면의 느낌이 퍽 괜찮았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북미 대륙을 횡단하던 때만큼.

그 시기는 캐리의 인생에서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때였다.

신선한 감각의 건축 디자이너로 크게 인정받기도 했고 점차 입지를 다져갔으며 건축을 통해 번 돈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니까.

또한 친구로 지내던 같은 업종의 피터와 결혼도 성공했는데... 행복이 길진 않았다.

같은 건축가였던 피터와 건축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기도 했지만 생각하는 건축의 방향이 너무 달라서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싸웠고 결국 3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하게 됐다.

더구나 그 시기부터 메타버스가 실제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지며 수많은 직업이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새로 탄생했기에, 실물 건축가로서 기껏 이루어놓은 캐리의 입지가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캐리는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오는 것처럼,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억지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 하지 않고 실물 건축가로서 내 자리를 지미고 있다면 언젠가 다시 빛을 바라는 순간이 찾아오겠지.’

신선한 감각을 지닌 실물 건축 디자이너라는 자리에서 언젠가 다시 기회가 찾아 오길 기다렸다.

그러던 때, 캐리는 은하 이주 프로젝트의 크립토 광고문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문이 열렸다.

‘나의 행성에서, 나의 건축물을 짓고, 나의 세상을 만든다?’

이전까지의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처럼 느껴졌지만 크립토 광고문의 밀코메다 행성은 현실이고, 그곳이라면 옛날의 위대한 건축가들의 계보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반가웠다.

꿈만 같은 기회에 캐리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다.

그 이후로 거버넌스의 연구실에서 밀코메다N 프로젝트를 위해 훈련을 받은 5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에,

마침내 행성에 도착한 캐리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실물 건축을 짓고 싶어 마음이 들떴다.

‘저 다리 옆에는 물가에 사는 동물들이 가까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어류 동물 병원을 지어야지! 그리고 대지가 넓은 저 평야에는 한옥 마을을 지을 거야! 나무로 된 집들은 전부 사라져서 사진으로밖에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추억복구! 레

트로!

로버를 타고 행성을 넓게 돌아다니던 캐리는 한군데씩 원하는 건축물을 생각해보았다.

짓고 싶은 건축물이 너무 많아서 머리에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전부 기억할 수 있을까 걱정될 만큼, 가슴이 뛰고 흥분되던 때.

갑자기 하얀 안개가 펼쳐지며 묘하게 온도가 내려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형이 새하얀 것과 연관이 있나?”

캐리는 급하게 로버를 세우고 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개가 점점 짙어졌기에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율 주행으로 하더라도 행성에 사는 다른 생물이 있을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다는 요소를 제외할 순 없으니까. 심지어 지금보다 더 짙어져서 앞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캐리의 예상은 하나둘씩 들어맞았다.

첫 번째로 노천탕을 온 것처럼 열게 퍼져있던 안개가 급격히 짙어져서 바로 눈앞에 둔 손바닥도 보이지 않았고, 등 뒤에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획- 획- 획-

아주 빠르고 날렵한 느낌.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벌이나 뱀처럼 맹독을 가진 존재일 수도 있었기에 안심할
순 없었다.

그때, 캐리의 주위를 맴돌기만 했던 인기척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다.

퍽!

“으악!!”

놀란 캐리는 뒤로 자빠졌고, 뒤에 있던 로버에 걸려서 엎어졌다.

다행히 로버의 폭신한 안장에 엎어졌기에 망정이지 반대였다면 우주복 헬멧이 작
은 실금이 났을 수도 있다.

아직 탐사를 마친 행성이 아니라 우주복을 벗어도 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
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캐리는 자기 얼굴에 붙어있는 카멜레온 가우디를 떼어내며 안도했다.

“너였냐...”

갑자기 달려들었던 묘한 인기척은 그녀의 애완 로봇인 가우디였다.

위험한 존재를 만난 것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그래도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눈앞도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얀 안개가 퍼졌던 게 조금 전인데, 지금은 놀랄 정도로 깨끗해져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시간 체크를 미리 했던 건 아니었기에 확실하진 않지만 로버에 붙어 있는 시계를 보니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 있었다.

캐리는 다시 로버에 올라타서 캡슐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방금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고, 왜 일어나며,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게 산더미라 바빠 움직였다.

#. 크리에이터 (건축가) - 캐리 (55일 차)

현재 본부는 아무도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통신기'에 문제가 생겨서 전부 끊겨 버렸으니.

낮선 행성에서 홀로 당황하고,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불안한 생활을 할 밀코인들의 생각에 거버넌스의 가슴은 미어지도록 아팠다.

그렇기에 하루라도 빨리 통신기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전까지는 임시로라도 밀코인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애완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켰는데, 이는 예전 버전에서 사용했다가 현재는 '시크릿 모드'로 감춰놓은 기능이었다.

처음에는 옛날 기능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시크릿 모드'로 감춰놓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선 천운이었다.

'시크릿 모드'가 없었다면 임시로나마 밀코인의 상황을 본부에서 볼 수 없었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1만 명의 밀코인 중 유일하게 시크릿 모드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인물이 있다는 거다.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 건축가 10인]에 선정되었던 캐리.

본부에서 훈련받는 5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책을 한 시도 놓지 않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움직이는 성격이던 그녀의 모습이 거버넌스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결국 시크릿 모드의 정체까지 알아버린 것인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통신기가 오작동하고 꺼지면서 전원 불빛 스위치가 이상해진 것이다.

원래는 작동하게 되면 빨간불이 켜지고, 작동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불이 꺼져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다.

본부에서 화면을 보기 위해 시크릿 모드를 켜면 캐리가 보기에 불이 꺼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캐리가 시크릿 모드를 켜서 빨간 불을 확인하면 본부에선 송신이 끊긴다.

그렇게 본부와 캐리는 안전을 확인하기 위함과 본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의 아무도 모르는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이상한 느낌을 받는 건 캐리도 마찬가지였다.

카멜레온인 가우디가 빨간 불빛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다가 자꾸만 끄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것도 틈틈이 오작동하게 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자꾸만 시크릿 모드의 빨간 불빛이 꺼진다.

캐리는 하는 수 없이 자주 예의주시하기로 생각하며 뒤를 돌았다.

본부에 상황을 알리기 위해 시크릿 모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날짜에 해야 하는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첫날 행성 주위를 둘러볼 때 발견했던 안개에 대해서는 임시로 가져온 키트들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대기와 토양 데이터의 분석 결과로는 지구에서 배웠던 다양한 원소뿐 아니라 전혀 다른 원소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걸 본부로 보내면 본부의 전문가들이 밝혀낼 영역이다.

대신 20시간 와중에 5~10분 정도만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독된 통에 안개의 일부를 담아서 단단히 밀봉해 놓았다. 훗날 지구로 돌아가서 자세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캡슐을 나와 금빛 씨앗을 심어 놓은 장소로 향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옥 마을을 건설하려고 했던 위치인데, 안개가 짙어지는 현상을 알아내기 위해 대지와 토양을 조사하다가 식물이 자라기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됐다.

'수치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던 캐리는 50일 차

에 금빛 씨앗을 심었고 예상대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자라서 당황할 정도였다.

3일 만에 넝쿨이 자라나고 5일 만에 열매가 열려 포도라는 것을 확인했고, 발효 또한 순식간에 완성 됐다.

‘이러다가는 75일 차에 작품 만들기를 하기 전까지 할 일이 없게 돼버리는 게 아닌가...!’

캐리는 기쁘기보다 걱정이 몰려왔다.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을 자주 겪지 않아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뒤에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은 계획에 안 맞았기에.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대로 지키는 캐리였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포도를 밟고 있는 발은 멈추지 않았다.

그 옆에는 이미 발효돼서 연도까지 적혀 나열된 와인들이 있었고, 2일 차에는 시음해본 키트 또한 아직 남아 있었다.

캐리는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씨앗 심기’의 종류를 둘러보면 어떨까 떠올렸다.

지금처럼 좋은 땅에서 빠르게 나는 포도마다 곧바로 밟아서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청포도와 적포도의 종을 섞거나 이들 전에 자라난 포도와 지금 자란 포도를 섞어보는 등의 실험.

'이참에 나만의 와인을 개발해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시간을 건디기 힘들 것 같아서 해본 이러저러한 생각이었지만, 되새길수록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다.

그때 캐리의 마음을 응원이라도 하는 듯, 한구석에서 자라던 넝쿨에서 청포도와 적포도와는 다른 색상의 포도가 자라났다.

이런 색상의 과일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화려한 색감으로 뒤 덮힌 포도 알갱이.

캐리는 다른 포도와 다른 포도알을 들며 환희했다.

"변종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지!"

앞으로 변종 포도종을 여러 개 만들어볼 생각으로, 캐리는 와인 보관 창고를 한 가득 세울 작정으로 지대를 계산해 나아갔다.

#. 크리에이터 (건축가) - 캐리 (75일 차)

광광!!

누군가의 힘으로 캡슐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통신기가 끊긴 것을 알고 있던 캐리였지만 위급한 순간이 되니 신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손이 제멋대로 나아갔다.

'제발... 제발 살려줘!!'

하지만 캐리의 간절한 손길에 통신기의 송신 버튼을 누르기 전, 캡슐의 문이 강한 굉음과 함께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자들은 징그러운 정도로 얼굴이 함몰된 모습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밀코인과 비슷한 체형에 변종 와인과 같은 색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통신기 앞에서 벌벌 떠는 캐리에게로 서서히 다가왔고, 하나둘씩 자기 머리 위로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보며 캐리는 식은땀을 흘렸다.

'나 말고 지구에서 온 밀코인이 더 있었던 거야...?'

3시간 전, 캐리는 밀코인 이주 프로젝트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작품 만들기에 열

중하고 있었다.

크리에이티이자 건축가로 활동하던 그녀는 이 행성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면 좋을
까 고민했고 행성의 특성을 차분하게 나열해보았다.

하얀 바위와 모래로 이루어진 포근한 행성.

보기에는 추운 겨울처럼 보이지만, 75일 내내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같은 날씨.

하얀 바위는 대리석처럼 보이지만 생김새와 달리 가볍고 유연성이 좋아서 건축에
최적화된 재료였기에 어떤 작품을 만들던 활용하기가 좋았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 캐리의 고민이 깊어졌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캐리는 임시 설계도로 여러 구상을 해본 뒤 마침
내 외쳤다.

“집을 만들자!”

어떻게 보면 집을 만들자는 건 생리현상만큼이나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

집이라는 건물이 가진 의미는 아주 크니까!

캐리는 즉시 로버에 올라타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모으고 다녔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어느새 끝에 다 달았고,

이번 주면 작품을 만들어보는 매뉴얼도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의욕이 절로 뿜어져 나왔다.

'흐음... 이참에 더 서둘러 볼까?'

씨앗 심기를 할 때 과하게 양지바른 땅을 발견해서 해야 하는 일을 순식간에 마무리 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뒤의 할 일을 너무 일찍 시작할 순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씨앗 심기의 심화 과정'을 만들어가며 시간을 보냈으니, 이번에도 '작품 만들기'의 시간이 남는다면 여러 개의 작품을 만들면 된다 생각한 것이다.

밀코메다은하로 함께 날아온 1만 명의 밀코인은 모두 소중한 동료이지만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하니까.

남들이 하나의 작품만을 완성했을 때 두 개의 작품을 만든다면 더 돋보일 거다.

결정을 한 캐리는 원래대로라면 이대로 마무리했을 하루를 더 길게 끌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필요한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페인트칠을 시작했다.

이 행성에서 발견한 물질을 갈아서 만든 푸른색 페인트는 발색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페인트를 칠하던 캐리의 손이 순간 멈췄다.

‘이게... 뭐지?’

부엌 벽에 사용된 자재는 로버를 타고 숲 깊숙한 곳에 들어가 발견한 것이었다.

이 행성에 얼마 없는 나무이기에 옆으로 쓰러져서 죽은 나무를 활용했는데... 페인트를 칠하자 자재의 위로 기이한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종이 위에 펜으로 꺾꺾 눌러 쓰고, 그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을 쓱쓱 그었을 때 보이는 흔적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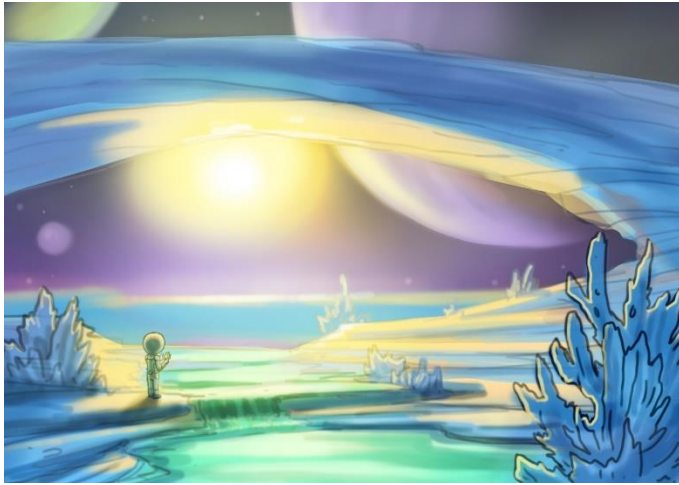
영어의 알파벳과 한자,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이상하게 섞인 글자가 나타났다.

여행을 자주 다녀 영어에 능숙하고 한국에서 15년을 살았던 캐리는 글자를 단박에 알아봤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걸...?’

캐리는 곧바로 애완 로봇인 가우디를 자기 어깨 위에 얹혀놓고 로버에 올라탔고 자재를 주웠던 장소로 향했다.

하나의 동굴과 그 주위를 둘러싼 나무들이 있는 곳.



분명 부엌에 사용한 자재를 주웠던 위치가 확실한데, 그땐 보이지 않았던 여러 물건이 눈에 밟혔다.

그리스.. 로마... 비잔틴... 심지어 로마네스크까지.

대부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거나 부서져 있었지만, 신중하게 살펴본 결과 건축 연도를 추정할 수 있었고 이를 본 캐리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은하 너머의 행성에서, 지구에서 유행했던 건축 양식을 발견하다니!'

건축가로서 매우 흥미롭게 느낄만한 일이었다.

캐리는 나중에 거버넌스에 보여주기 위해 건축 양식의 특징이 잘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로버에 차곡차곡 쌓았다.

그런데, 두어 개쯤 주웠을까 싶었을 때 동굴에서 뭔가가 빛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계속 나온다.

와중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밀코인과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 피부가 노란색인 밀코메다N과 다르게 동굴 안에서 나타난 녀석들은 화려한 색상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이다.

마치... 변종 포도처럼.

캐리와 변종 밀코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불안이 엄습한 캐리는 녀석들을 주시하다가 빠르게 로버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일단은 가장 안전한 캡슐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속도를 내었다.

하지만 문제는 변종인 녀석들이 로버와 맘먹는 속도로 내달렸다는 것.

'그게,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다.'

1) 아티스트 앤디 행성- 아름다운 절벽에 폭포수가 떨어진다.



#. 아티스트 (화가) - 앤디 (35일 차)

앤디는 화가가 되지 않았다면 와이너리의 주인이 되었을 거다.

몇백 년간 대대로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그에게 와인은 물과 같은 생존 식량이고 포도나무는 친구나 마찬가지로였다.

와인이 없는 삶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에, 블루버진 스페이스호를 탑승할 때 가장 아끼던 피노누아 품종 씨앗을 가지고 왔다.

첫날에 행성에 착륙하면서부터 해야 하는 일은 많았지만 앤디는 아끼는 피노누아 품종 씨앗을 가장 먼저 곳곳에 심었다.

'90일 동안이나 이 행성에서 지내야 하는데 한 모금 축일 와인이 없다는 건 끔찍한 일이지.'

포도나무 중에서도 피노누아 품종은 재배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다행히도 앤디의 집안 와이너리의 주력 품종이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 품종이었기에 잘 키울 자신은 있었지만, 지구와 다른 행성을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완성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한 뒤 맛있게 숙성된 와인을 하루라도 먼저 마시기 위해 서두른 것이다.

더구나 앤디가 착륙하게 된 행성은 온통 안개로 뒤 덮혀서 수분을 조절하기 어려웠다.

낮과 밤조차 제대로 구별이 되지 않았으며 주변을 온통 바위나 돌산으로만 가득했고 돌산 사이를 지나치는 바람은 기괴한 소리까지 내었다.

‘지구보다 아름다운 행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들었는데 이미 이 행성은 모습조차 제외당한 게 아닐까...’

앤디가 이처럼 생각하는 것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제외할 곳 같았으면 본부에서 탐사 행성으로 선정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도 탐사를 떠나기 위한 짐을 채비했다.

옛날에 어떤 예능인이 말한 하루살이 동화가 있었다.

하루살이가 거울에 눈을 떠서 거울만 보고 죽었다고 지구가 거울밖에 없는 행성 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처럼 이 행성 또한 어딘가에는 진흙 속의 진주를 숨기고 있을 수 있으니까.

비록 탐사 일정에 따라 5일 전부터 주변을 돌아본 결과 아직 파악한 건 역시나 돌산과 안개만이 전부였지만 아직 꿈을 버리기엔 이르다.

앤디는 A1을 경비견 모드로 바꾸고 캡슐 밖으로 나섰다.

문을 열자 강한 바람과 함께 안개가 쭈욱- 들어왔는데, 이 행성에 도착한 지 벌써 35일째로 이 광경 또한 수없이 보았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발걸음은 항상 로봇 강아지의 뒤를 따라 한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고, 너무 깊숙한 곳이나 안개가 자욱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은 따로 체크만 해두고 들어가지 않았다.

속속-

덕분에 앤디의 탐사 지도에는 O표시보다 X표시가 가득하게 되었지만 앤디는 이러한 탐사 방식을 당분간은 바꿀 생각이 없었다.

본부에서 지시한 탐사 매뉴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신기에 문제가 생긴 이 시점에서는 대원의 안전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달라질 건 없을 거다.

대원이 목숨을 잃어 구조대의 연락도 받지 못한다면 이 행성은 우주에 버려지게 될 테니.

대원을 위해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 프로젝트를 진행한 본부를 위해서도, 대원이 없다면 우주에 버려지게 될 행성을 위해서도, 대원의 생존은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앤디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왕!

늠름한 자세로 위풍당당하게 앞장서서 가던 A1의 목청이 등 뒤에서 들렸다.

‘언제 저기로 갔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안개 속에서 엇갈린 건지 다른 곳으로 가 있는 A1을, 앤디는 기기 조작을 통해 옆으로 불렀다.

그때, 안개 속에서 나타난 A1의 모습을 본 앤디는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확히는 A1이 입에 물고 있는 금빛 색상 때문에.

앤디는 탐사하면서 자신의 피노누아 포도나무 씨앗과 본부에서 심으라고 지시한

금빛 씨앗에게 알맞은 터를 찾으려, 씨앗 주머니를 가지고 나왔었다.

“A1. 그건 장난감이 아닙니다. 돌려주세요.”

강아지이긴 하지만 일단은 로봇이고 낯선 행성을 간 밀코인을 보조하기 위해 시스템화 되어 있는 애완 로봇이다.

이 정도라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며 목소리를 낮게 깐 앤디였지만, A1은 뒷걸음질을 치며 앤디를 주시했다.

“히잉...”

A1은 심통이 난 강아지처럼 투정 부렸다.

주인과 소통하는 애완 기능과 업무를 수월하게 해주는 시스템 기능 사이의 부딪힘이 생긴 듯한데, 다행히도 업무의 시스템으로 기능이 확정됐는지 서서히 다가왔다.

그 모습에 앤디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녀석의 입에서 떨어진 금빛 씨앗이 데구르르 굴러가더니 안개 너머로 쏙 들어가 버렸다.

깜짝 놀란 앤디는 A1을 지나쳐서 금빛 씨앗이 굴러간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다행히도 금빛 씨앗은 아직 눈에 보이는 곳에서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해서 우중충한 주변 덕분에 더 잘 보인 거였기에, 앤디는 이 행성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환경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다만 금빛 씨앗을 향해 간단히 손을 뻗을 수는 없었다.

가만히 멈춰 있는 주인을 보며 자신이 뭔가를 잘못 했다고 느낌 A1이 직접 입에 물고 가져오려 했지만, 앤디는 A1 마저도 품 안에 들어 안으며 바닥에 떨어진 금빛 씨앗을 주시할 뿐이었다.

금빛 씨앗은 안개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

안개가 가득한 사이에 있긴 하지만, 정확히는 그 너머의 어딘가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그 예로 금빛 씨앗이 떨어져 있는 곳 주변은 묘하게 더 어두워 보였고 허공에는 일그러진 현상이 보였다.

'너머... 그 너머의 어딘가에 떨어진...'

앤디는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스쳐 들은 지식을 더듬으며 이 현상이 블랙홀 같은 게 아닐까 떠올렸다.

밀코메다 이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본부에서 5년 동안 우주학에 관해 수업 받은 1만 명의 밀코인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심화 교육은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듯, 과학의 전문 지식이 거의 없던 화가 앤디에겐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었을 뿐이었다.

그렇기에 현재 앞에 일어난 현상이 블랙홀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도 블랙홀은 행성이나 별의 소멸 단계에서 생성되고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중력으로 끌어당긴다고 한 내용이 기억났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자면 현재 일렁거리는 현상과 앤디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당겨지는 느낌은 없으니, 블랙홀이란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다음으로 의심이 가는 건 '웜홀'

처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 확실하게 파악된 건 없었다.

위험한 걸 즐기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앤디는 슬슬 결정을 해야만 했다.

이대로라면 언제 닫힐지 모르는 정체 모를 공간에 금빛 씨앗을 빼앗겨버리고 말

테니.

금빛 씨앗을 50일 때에 심지 못하면 앤디는 그로써 이주 프로젝트의 탐사원으로
서 완벽하게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수식만은 결코 허락할 수 없었기에 앤디는 처음으로 모험하기로 했다.

‘만약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 변형된 블랙홀이라면 죽음뿐이겠지만... 웜홀이
라면 이전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생존할 수 있어.’

앤디는 A1을 품 안에 꼭 안고 일렁거림 안으로 들어갔다.

목적한 무언가가 짓누르는 느낌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머지않아 가볍게
사라졌다.

스윽-

하지만 사라진 것은 온몸을 짓누르는 중력뿐만 아니었다.

앤디가 금빛 씨앗을 집어 들고 뒤로 돌았을 때는 이미 웜홀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었다.

‘...큰일 났네.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미 너무 작아져 있는데 팔 하나만 잘리
진 않을까?’

괜히 급하게 몸을 구겨 넣었다가 두 동강 나진 않을지 싶었던 탓에, 앤디는 용기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그러다가 결국 헬멧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크기로 웜홀이 작아졌고 이내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기후가 엉망인 행성,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탐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잘 심어 보려 했던 금빛 씨앗을 잃어버리고, 찾은 곳에서는 미아가 됐다라...

자신도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날 지경인데 본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걱정이 됐다.

더구나 웜홀을 지난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건지 순간 어지러워진 정신에 앤디는 온몸을 휘청거렸고, 이내 자신이 있는 위치를 확인했다.

실로 놀라운 광경이었다.

우중충하기만 했던 행성 착륙지와 다르게 웜홀을 통해 나온 것은 울창한 숲과 높은 지대, 그곳에서 밑으로 실 새 없이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의 물, 물이 바닥과 마찰하며 만들어낸 안개는 산신령의 집과 같은 비현실적인 풍경을 자랑했다.

‘착륙지보다 훨씬 좋잖아...? 이거, 좋아해야 하나?’

앤디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 아티스트 (화가) - 앤디 (75일 차)

앤디는 오늘로 다섯 번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캡슐 밖의 날씨를 살폈다.

날씨는 캡슐 위로 설치해 둔 모니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걸 넘어서 행성 주변에 자리한 다른 행성들 또한 천체로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 안개와 돌산만 가득한 우중충한 행성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은하수조차 아름답게 수놓아진 곳이었다.

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워홀의 도움이 컸다.

잃어버린 금빛 씨앗을 되찾기 위해 우연히 들어갔던 워홀.

생사를 놓고 시도한 모험이었는데 금빛 씨앗을 줍자마자 워홀이 모습을 감추었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캡슐과 동떨어진 앤디의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캡슐이 이 행성으로 착륙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조금 더 활기차게 이주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앤디의 우주복에서 캡슐이 근처에 있다는 신호가 울렸고, 수신호가 가리킨 곳은 거대한 폭포 그 밑이었다.

안개만이 가득하던 행성, 뿜뿜을 타고 넘어온 곳에 가득한 폭포, 폭포의 밑에 캡슐이 있다고 가리키는 수신호.

이를 찬찬히 되짚어 보던 앤디는 크게 한 방 맞은 듯 멍해졌다.

뿜뿜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한 치의 앞만 봐서 넓게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앤디의 캡슐이 처음 착륙했던 곳은 지대의 밑이고 뿜뿜을 타고 온 공간은 그 위였던 것.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 넓은 우주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으로 온 건 아니라는 생각과, 통신기의 오작동이 고쳐진 건 아니었지만 살았다는 생각, 그리고 나의 행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안도감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앤디는 잘 들어가지 않는 힘을 억지로 내어서 A1과 함께 캡슐이 있는 위치로 돌아갔다.

그리고 캡슐에서 필요한 장비를 꺼내어 다시 지대 위로 올라왔고 그곳에 새로이 터를 잡았다.

그렇게 우중충한 탐사를 기록하던 노트도 대대적인 수정을 보았고, 다른 매뉴얼도 찬찬히 이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때마다 아직 통신기는 오작동이지만 습관처럼 전송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보곤 했다.

‘다른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생각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앤디는 매뉴얼을 이행하는 것과 불안해하는 것을 연신 반복하다가 매뉴얼과 상관 없이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직업이기 이전에 가장 좋아하는 행위였고, 이를 하고 있을 때면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으니까.

물론 좋아하는 와인을 한 잔씩 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림 작업이 편했다.

덕분에 앤디는 75일간의 낯선 행성 생활을 큰 문제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

또한 원래 매뉴얼대로라면 75일에 한 개의 작품이 만들어졌어야만 하지만 앤디는 취미를 겸해서 만들었기에 이미 다섯 점의 그림을 완성하던 차였다.

그렇기에 더욱 잘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작품일수록 작가의 심정이 편안해진 것이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앤디는 기획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행성에서 작품 만들기'를 염두에 두었고, 단순히 그리는 걸 넘어서 행성의 자원을 이용해 입체회화 기법을 활용했는데.

행성에 있던 풀과, 물과, 모래와, 열매 등등.

모든 것이 앤디의 영감이 되었고 예술적 도구가 되었으며 작품이었다.

탐사와 경비하면서 작품에 쓰일 재료를 찾고 다녔으며 장소가 마음에 들면 이미지를 참고할 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하루를 통째로 날렸다.

평소 지구의 앤디 같았으면 상상도 안 해봤을 일을 너무나 간단히 행했다.

앤디는 그제야 머나먼 우주에서 자신이 '청춘의 불안한 미래를 대변하는 작가'로 크게 인정받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앤디는 천재라고 인정받으면서도 늘 불안해했다.

그곳에서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으니까.

하지만 의도치 않게 온 우주와 소통이 끊긴 상태로 75일을 지내다 보니 혼자 남았다는 두려움을 넘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찾은 것이다.

90일이 되어 지구로 돌아가기까지 아직 15일이 남은 상태인데, 이 기간에 더욱 마음을 다잡고 돌아간다면 어떨까.

이전에 ‘불안한 청춘의 미래’를 대변했던 화풍과는 확연히 달라진 화가 앤디의 자신감 넘치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보기도 하며, 앤디는 오늘도 다섯 번째 시리즈를 위해 도구를 들었다.

오늘 만들 작품의 주제 배경은 별뿔별이었다.

이 행성은 낮은 지대에선 안개만 자욱했지만 위로 올라오니 유달리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적지 않은 텀으로 떨어지는 별뿔별을 만나볼 수 있었다.

죽어가는 행성일지, 지구와 다르게 떠오르는 행성일지, 본부 측에서 보내주는 구조대일지는 알 수 없지만 몇 번이고 앤디의 행성을 지나쳐서 사라졌다.

사실 앤디는 높은 확률로 거버넌스가 보내주는 구조대라 믿었다.

오늘은, 어제는, 비록 저번에는 본인이 아닌 주변 다른 동료의 행성에 먼저 착륙 하였지만.

언젠가 자기 행성에도 구조대를 보내줄 거라며 굳게 믿었다.

앤디는 그런 희망을 담으며 다섯 번째 작품의 주제를 '별똥별'로 정했고, 작품의 별똥별 부근에 반짝이는 조개를 붙이며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실망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 아티스트 (화가) - 앤디 (89일 차)

벌써 이 행성에 온 지 89일 차.

원래대로라면 당장 내일 행성을 떠나야 하는 일정이라 준비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앤디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그림 만들기에 집중했다.

통신이 끊긴지 89일 차이기도 하니까.

지구로 돌아가는 것을 단념한 것은 아니지만 어수선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그럴 시간에 이전에 만든 여섯 점의 작품의 도슨트를 작성했다.

운이 좋아서 90일에 딱 구조대가 오면 다행이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제까지고 구조대를 기다리며 살아있을 여력이 없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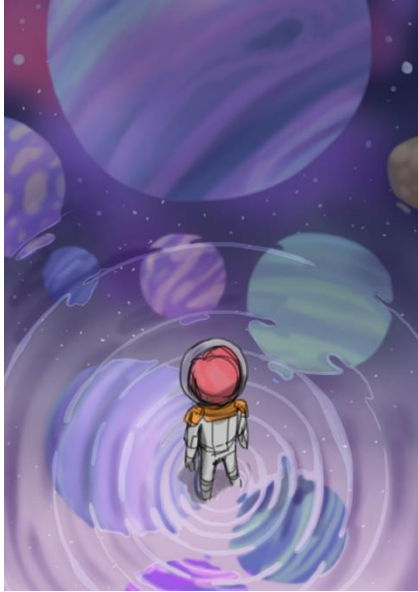
몇백 년 뒤에 구조대가 오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우주에서 만든 마지막 작품을 설명하는 글만은 남겨두고 싶었다.

90일간에 많은 일이 있었다.

웜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면서 내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지구의 풀벌레를 닮은 곤충과 식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도 발견했다.

식용이 가능한 식량이 있으니 90일을 넘어서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싶겠지만 그것과는 다른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뿐이다.



그런데 앤디가 풀을 짓이겨서 만든 색감을 선 위로 덧칠할 때, 어디선가 풀벌레와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르르릉 울며 단잠을 자는 A1 강아지의 소리도 아니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높으면서도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기계 소리.

놀란 앤디는 들고 있던 붓을 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점점 기계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신중하게 걸음을 옮겨서 주변을 살폈고, 몇 시간을 소비한 뒤에야 절벽 밑에 숨겨진 통신기를 발견했다.

생김새는 앤디가 사용하던 통신기보다 훨씬 크고 두껍지만 통신기에 부착된 로고는 같은 그림이었다.

역시나 처음 보는 모델이었으나 스위치나 작동법은 거의 비슷했으며 기존 통신기

의 작동법을 잘 알고 있던 앤디는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지직 소리와 함께 뭔가와 연결되는 소리가 났다.

앤디는 아직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었다.

"...hello?"

[Law의 토, 통신이 연결됐습니다!]

그러자 통신 너머의 목소리가 선명히 들렸다.

당황한 목소리 뒤에 들리는 이 음성은 거버넌스의 목소리가 분명하다.

[...이름과 기수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앤디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름이야 그렇다 치고 기수가 뭐란 말인가?

"밀코메다N의 앤디입니다..."

딱히 이름 말고 덧붙일 게 없던 앤디는 '밀코메다N'이라는 칭호까지 붙여 말해 보았다.

그러자 거버넌스의 목소리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부터 개인적인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통신기의 채널을 이용해서 다른 밀코메다N의 통신기 또한 본부와 연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시대로 따라주십시오.]

거버넌스는 쉴 틈 없이 통신기 조작법에 대해 알려주었고 앤디는 뭔가에 이끌리는 듯 손을 움직였다.

우선은 장작 89일 동안 끊겼던 통신기를 연결해서 다른 동료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수고하셨습니다.]

앤디가 궁금증에 대해 입을 연 건 거버넌스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고 나서였다.

“이 통신기는 제가 사용하던 것과 다른 버전인데 어떻게 된 거죠? 행성에 이주한 밀코인은 저희가 최초가 아니었던 겁니까? 아까 말한 Law는 또 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밀코메다N 이전에도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죠. Law는 밀코메다N처럼 그들을 부르던 통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성공에 근접한 것은 밀코메다N 여러분이 처음이고, 지구에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최초의 밀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밀코메다 은하로 왔던 밀코인... Law들은 어떻게 된 거죠?”

통신 기계는 발견했지만 사람이 살았었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자연이 이미 흔적을 지운 만큼 오래전이었다 하더라도, 지구에 있을 때의 앤디는 누군가가 새로운 은하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역사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다.

이에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거버넌스뿐인데...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밀코메다N과의 통신이 하나둘씩 연결되었다.

띠링, 띠링, 띠링, 띠링-

-뭐, 뭐야? 드디어 통신이 연결된 거야? 살았다!!!!!!! 모두 내 말 좀 들어봐!

-마침 연결 시도해 보길 잘했네. 거버넌스 혹시 듣고 있으면,

제가 지구로 가기 전에 복원 프로젝트에 후원할 기업 리스트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런 고리타분한 것은 나중에 하라고! 행성에서 생물 발견한 밀코인 있어?

난 무려 두더지가 열댓 마리나 된다고, 내 해부 연구가 먼저야!

통신이 연결되자마자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앤디는 입을 열수가 없었고, 한참 말이 없던 거버넌스가 입을 열었다.

[밀코메다N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통신이 끊겨 당황스러웠겠지만 각자의 애완로봇을 통해 여러분의 수고는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매우 감사드리며, 통신 연결에 힘써주신 앤디님에겐 특별한 은하의 이동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간 먼저 지구에 복귀할 수 있는 루트이고, 앤디님의 단독 기자회견이 마칠 때쯤 다른 밀코메다N의 캡슐이 차례대로 지구로 복귀할 것입니다.]

거버넌스의 말을 들은 밀코메다N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통신을 연결해 줘서 고맙다는 말과, 선발대 중에서도 선발대라니 축하한다는 말, 자신이 단독 기자회견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앤디니까 인정한다는 말 등등.

겨우 정신을 차린 앤디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통신이 끊기고 날을 꼴딱 새웠다.

행성에서 출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보다 생각할 것이 많았으니까.

짐을 모두 캡슐에 싣고, 예정된 시간이 되었을 무렵 캡슐의 문을 닫았다. 차이잉-3, 2, 1...

고민했던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캡슐이 우주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은 아주 빨랐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앤디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 캡슐을 바라보며 행성의 언덕 위에서 그림을 그렸다.

“언제까지 거짓 위에서 살 순 없어. 나는 최초가 아니라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까, 나의 예술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세상에 보여줘야지.”

거버넌스가 앤디에게만 알려준 은하 루트는 확실히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방법이였다.

지금은 의문을 느낄 테지만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받고 아티스트로서 크게 인정받으면 금방 잊게 될 테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원래 예술가라는 자들이 주변의 평판에 쉽게 휩쓸리기도 하니까. 아니 너무나 바빠 생각할 틈도 없을 것이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그리며, 거버넌스는 앤디에게 했던 약속대로 기자들을 잔뜩 불러 놓았다.

그러나 밀코메다은하를 넘어 지구로 돌아온 캡슐은 고물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정도로 부식된 상태였다.

당연하게도 그 안에는 최초의 밀코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시간을 앞다투어 '복귀에 실패해서 사라진 밀코인, 블랙홀을 지나다가 부식된 캡슐'에 대해서 다루었다.

하지만 그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거버넌스는 캡슐을 보자마자 깨달았다.

이건 밀코메다N이 사용했던 캡슐이 아니라 정말 최초의 밀코인 Law가 탔던 캡슐이고,

앤디가 이것을 보낸 건 자신의 의도를 확실히 하며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